

[추석연휴 대비 및 가을철 감염병 예방수칙안내]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 짧은 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곧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쯤쯤가무시증, 신증후군출혈열 등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가을철 유행하는 감염병 및 예방법

구분	쯤쯤가무시증	유행성 출혈열 (=신증후군 출혈열)	렙토스피라증
정의	쯤쯤가무시 리케치아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질환	한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발열성질환	병원성 렙토스피라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질환
주요증상	가피형성, 고열, 오한, 심한 두통, 발진, 구토, 복통 등	발열기, 저혈압기, 핏노기, 이노기 회복기의 5단계	가벼운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병까지 다양함
호발시기	9~11월	10~11월	9~11월
잠복기	9-11일	7-21일	5-7일
전파경로	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	설치류(쥐류)의 타액, 소변, 분변이 공기 중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 	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, 흙,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 

2.해외여행시 감염병관련 유의사항

여행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 •필요한 예방접종,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기타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 -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
여행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, 비누와 손씻을 물이 없다면 60%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세척gel 사용 •야외에서는 긴팔옷, 긴바지, 모자를 착용하고 곤충기피제를 사용 •동물에게 물리거나 동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환(광견병이나 페스트 등) 예방을 위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건드리거나 만지지 말 것 •만약 물렸거나 할퀴었다면 상처를 비눗물로 세척하고 의사를 찾아 광견병 백신이 있는지 물어볼 것
여행 후	<p><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만성질환(심부전, 당뇨, 만성호흡기 질환 등)을 앓고 있는 경우 •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, 설사, 구토, 황달, 소변이상,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•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•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<p><항-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,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•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(1년까지)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해야 함

3. 유행성 눈병 개요 및 예방법

구분	유행성각결막염(EKC)	급성출혈성결막염(AHC)
병원체	•아데노바이러스(주로 8형, 19형, 37형)	•엔테로바이러스 70형 •콕사키바이러스 A24 variant 형
전파 경로	1. 직접 신체적 접촉: 눈 분비물 등 2. 개인용품을 통한 간접 접촉: 수건, 침구물, 세면기구 등 3. 수영장 등 물을 통한 전파	
발생 현황	•산발성~유행성 •늦여름~초가을에 주로 발생	•약 5~10년 주기로 유행 •늦여름~초가을에 주로 발생
잠복기 및 주요 증상	•잠복기 : 5~7일 •주요 증상 1. 눈곱, 이물감, 눈꺼풀 부종, 양안의 충혈, 동통, 눈물, 눈부심 2. 결막하 출혈 3. 깃바퀴 앞 림프절 종창 4. 3~4주 지속됨	•잠복기: 8시간~2일 •주요 증상 1. 갑작스러운 이물감, 충혈, 눈부심, 눈물 이 주 증상 2. 안검부종, 결막부종, 결막여포, 상피결막염 3. 결막하 출혈반이 70~90%에서 발생 4. 결막하 출혈은 7~12일에 걸쳐 점차 흡수됨 5. 깃바퀴 앞 림프절 종창이 있을 수 있음
전염력	•발병 2주 정도까지 전염력이 있음	•증상발생 후 적어도 4일간 전염력 있음
등교중지 (격리)	•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※ 학생 감염병 예방·대응 매뉴얼 참조(p.26)	
합병증	•각막 상피 하 혼탁이 남아 심해지는 경우 시력저하가 생길 수 있음 •결막에 분비된 눈물보조세포나 점액분비 세포가 바이러스나 염증에 손상을 입으면 서 안구건조증 발생 (보통 6개월 지속) •그 외 영구적인 결막반흔, 눈꺼풀 처짐, 눈꺼풀과 결막의 유착	•결막염을 앓은 수 주 후에 사시마비 또는 뇌신경마비가 드물게 일어날 수 있음 * 관련 감염병 : 수족구병
치료	•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는 없음 •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안약이나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균제 안약을 점안할 수 있음	

2019. 9. 4.

호 남 삼 육 중 학 교 장(직인생략)